

6월 수출입 중소기업 환율전망조사 결과

- 수출입 중소기업들은 다음달(13.7월말) 환율로 1,126.7원을 전망
 - 조사시점(6/18, 1,126.0원) 대비 0.7원 상승한 수치
 - 3개월 후(13.9월말)와 1년 후(14.6월말) 환율은 1,123.9원과 1,111.1원 전망
- 중소기업 환율 담당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“환율 전망”
 - 담당자들은 주로 “매일”(66%), “금융기관 및 연구소 등”(66.3%)에서 제공하는 환율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

(1) 다음달(13.7월말) 원/달러 환율전망 : 1,126.7원 (보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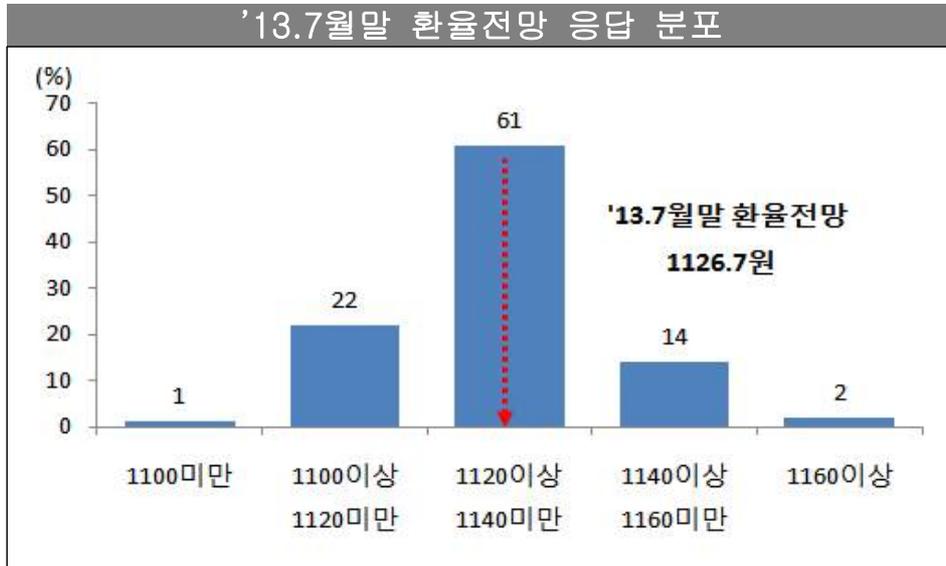
□ 중소기업들은 7월말 환율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
※ 비교기준 : 1,126.0원(조사시점 환율, 6.18일)

- 조사시점(6/18일, 1,126.0원) 대비 0.7원 상승한 수치
- “상승”(35%)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비율이 “하락”(28%)할 것이란 응답보다 많게 조사된 건 조사시작(12.8월) 이후 처음
 -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가 전월(13.5월)에 비해 큰 폭(11.2%p)으로 상승
 - 한편, ‘보합’ 응답 비율이 37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
- 다음달 환율 전망에 대한 “하락” 응답자와 “상승” 응답자의 차이는 33.4원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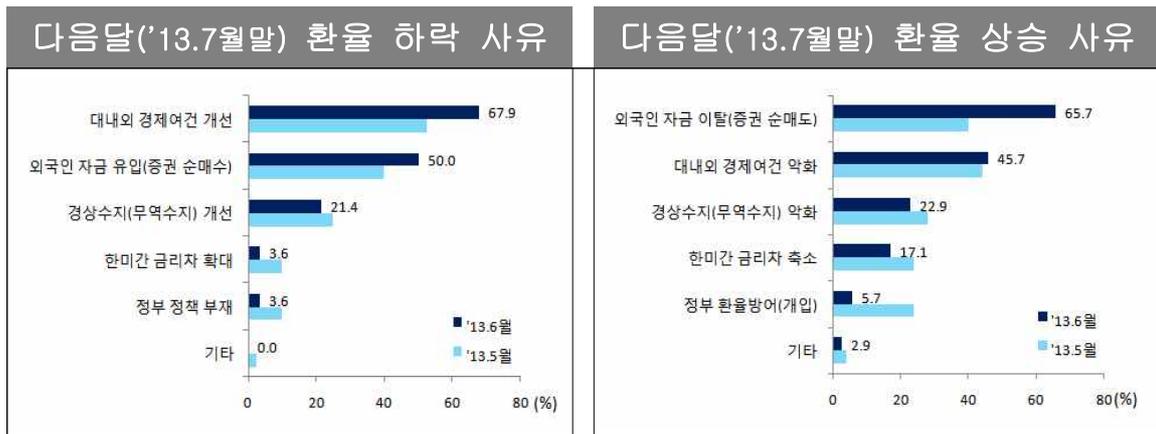
다음달 환율전망	응답 비율	평균 환율전망
하 락	28%	1,108.8원
보 합	37%	1,125.7원
상 승	35%	1,142.2원
전 체	100.0%	1,126.7원

- 전체 응답의 61%가 ‘1,120원 이상 1,140원 미만’ 구간에 분포
 - ‘1,130원’(17%)을 전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



□ 환율 상승의 주 사유로 '외국인 자금 이탈'(65.7%)이 큰 폭 증가

- 양적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로 국내에 유입되었던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확대
- 한편, 환율 하락 사유 중 '대내외 경제여건 개선' 응답은 전월('13.5월)에 비해 상승(52.5% → 67.9%)



※주 : 복수응답

(2) 3개월 후('13.9월말) 환율전망 : 1,123.9원 [소폭 하락]

□ 3개월 후('13.9월말)에는 원/달러 환율이 현재수준보다 소폭 하락(2.1원) 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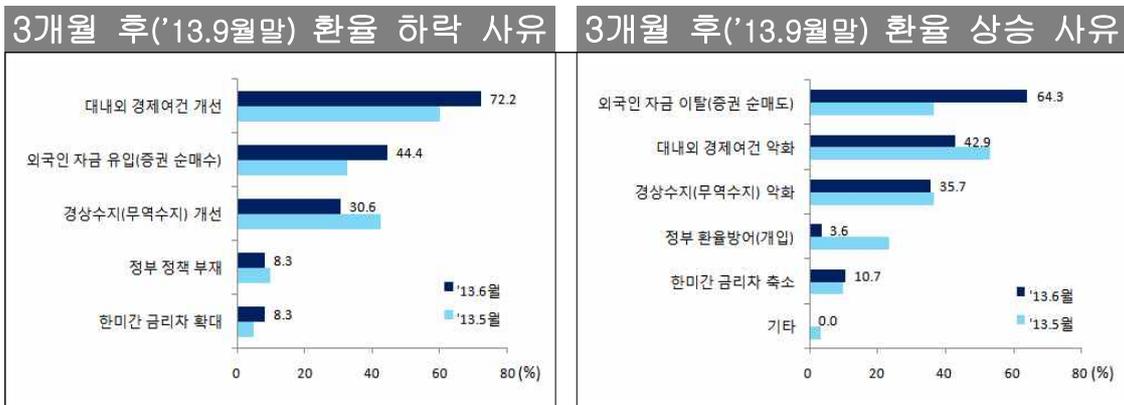
※ 비교기준 : 1,126.0원(조사시점 환율, 6.18일)

- '상승' 전망이 우세했던 다음달('13.7월) 환율전망과는 다르게 중기에는 원/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
- 전월('13.5월)의 조사와는 큰 차이 없음

구 분	3개월 후('13.9월말) 환율전망			합계
	하락	보합	상승	
응답 비중	36.0%	36.0%	28.0%	100%

□ 3개월 후에는 글로벌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

- 환율 하락 전망자의 '대내외 경제여건 개선'(72.2%) 응답이 증가한 반면 환율 상승 전망자의 '대내외 경제여건 악화'(42.9%) 응답은 전월에 비해 감소
- 반면, 외국인 자금 유입(유출)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가짐



※주 : 복수응답

[3] 1년 후('14.6월말) 환율전망 : 1,111.1원 (하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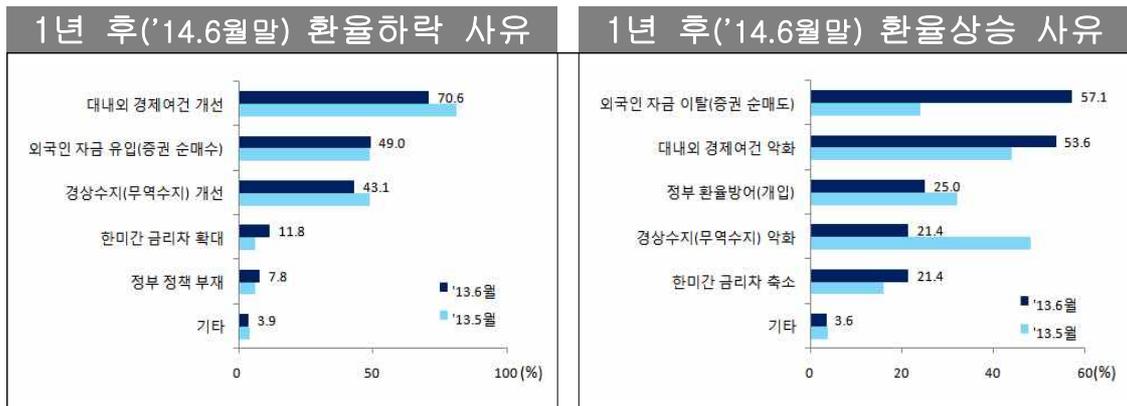
□ 중소기업들은 1년 후('14.6월말)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

- ※ 비교기준 : 1,126.0원(조사시점 환율, 6.18일)
- 조사시점(6.18일, 1,126원)에 비해 14.9원 하락한 수치로 원/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론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- 과반수 이상(51%)이 '하락'을 전망

구 분	1년 후('14.6월말) 환율전망			합계
	하락	보합	상승	
응답 비중	51.0	21.0	28.0	100

□ 1년 후 환율 하락을 전망하는 주요 사유는 '대내외 경제여건 개선(70.6%)과 '외국인 자금 유입'(49.0%), 경상수지 개선(43.1%)임

○ 환율 상승의 사유는 외국인 자금 이탈(57.1%)이 전월에 비해 큰 폭 상승(24% → 57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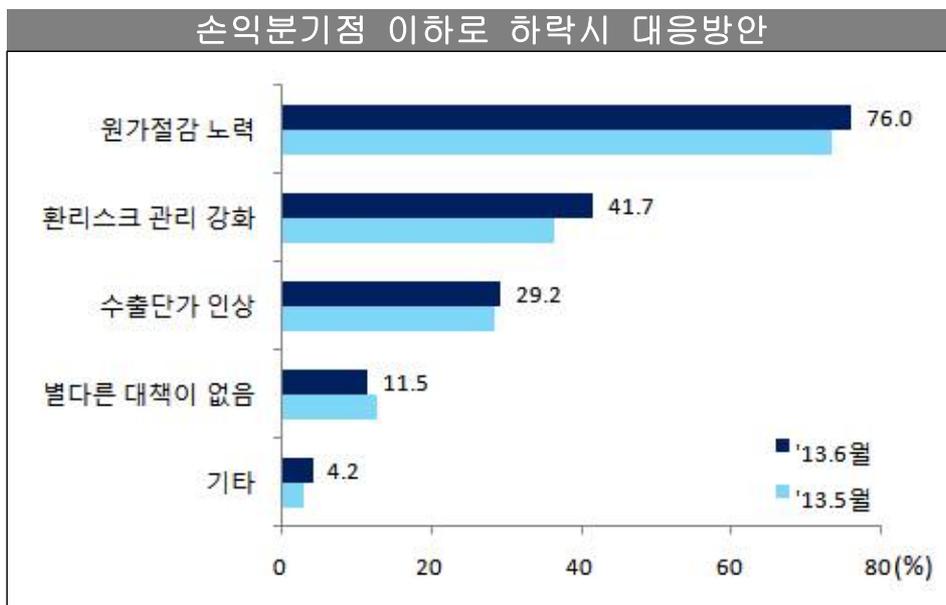


※주 : 복수응답

(4) 손익분기점 환율

□ 수출입 중소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,088.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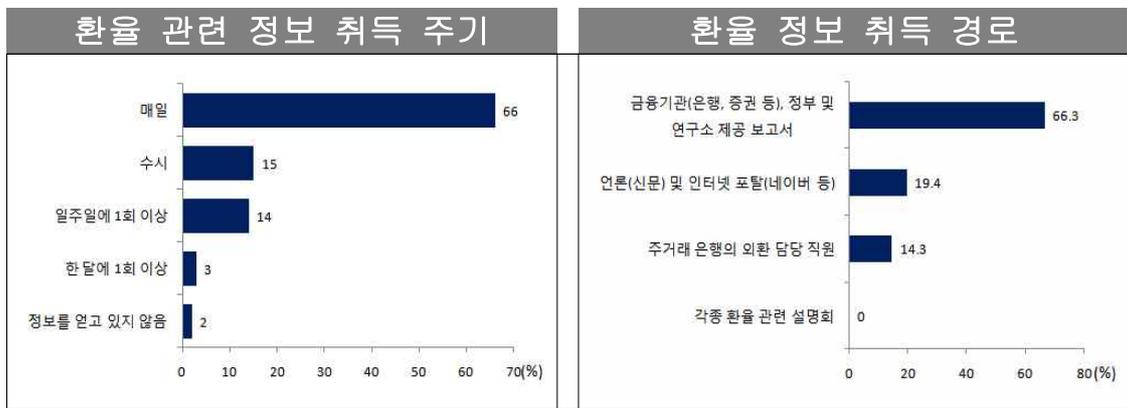
○ 최근 환율이 손익분기점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중소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우려는 다소 감소



※주 : 복수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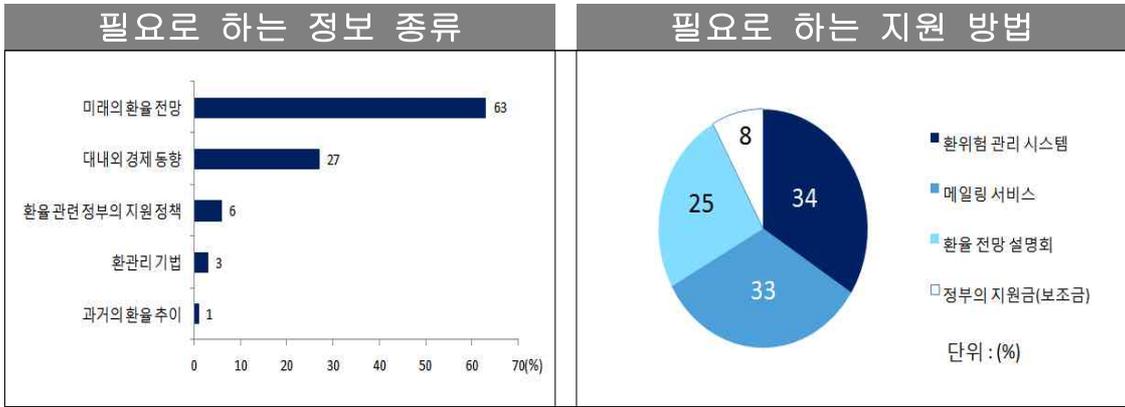
(5) 환율 정보 취득

- 응답기업의 66%는 환율 관련한 정보를 '매일' 취득 하고 있으며, 주로 '금융기관, 정부 및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보고서'(66.3%)를 활용
 - 대부분(95%)의 기업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정보를 취득 중인 것으로 조사됨
 - 정보를 아예 얻고 있지 않는 기업도 3% 존재
 - '금융기관, 정부 및 연구소' 다음으로는 '언론(신문) 및 인터넷 포털'(19.4%)과 '주거래 은행의 외환 담당 직원'(14.3%)으로부터 정보를 취득
 - 환율 관련 설명회를 통한 정보 취득은 전무(全無)한 상황



- 중소기업 환율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'미래의 환율 전망'(63%)이며, '환위험 관리 시스템'(34%) 등의 지원이 필요
 - '미래의 환율 전망'외에, 환율 결정을 위해서 '대내외 경제 동향'(27%)을 필요로 하고 있음
 - 당행의 '헤지 메신저*'와 같은 '환위험 관리 시스템'의 지원을 가장 선호 하고 있었으며, '메일링 서비스'(33%)와 '환율 전망 설명회'(25%)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

※헤지 메신저 : '목표환율' 도출과 '헤지타이밍' 전송을 통해 안정적인 환위험 관리를 도와주는 IBK의 실시간 환위험 관리 시스템



< 조 사 개 요 >

1. 조사기간 : 2013.6.18~2013.6.20(3일간)
2. 조사대상자 : 당행 거래 중소기업 180개사
3. 응답비율 : 58.8%(106개사)